

광주공공의료원 유치 놓고 '3파전'

'필수 의료 소외' 광산구·서구 권역 대상 부지 선정 용역 광산, 접근성 우수 '의료 허브'...서구 '인프라·확장성' 북구, '수요론'에 공론화 주장...市 "차질없는 추진 중요"

광주시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놓고 자치구 간 경쟁이 불붙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음압병상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오는 2024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대처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추산액만 1000억 원대다.

지난해부터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인 시는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광산·서구에 설립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

책'(2019년 11월)에서 광주시 전역 5개 자치구를 동·남·북구, 광산·서구 등 2개 진료권역으로 나뉘는 데 따른 것이다.

권역별로 동·남·북구에는 상급종합병원(전남·조선대병원) 2곳, 종합병원 8곳, 권역응급센터 2곳, 지역응급센터 1곳, 심혈관인증병원 3곳, 뇌혈관인증병원 2곳 등이 위치해 있다.

반면 서구·광산구는 종합병원 10곳, 지역응급센터 2곳, 심혈관인증병원 2곳에 불과, 필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시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에 공공의료원을 우선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구·광산구에 한해 신속 설립을 추진했다.

기존의 감염병전담병원인 남구 빛고을전담대병원을 개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후보지 4곳(서구 2곳·광산구 1곳·남구 1곳)을 물망에 올렸다.

후보지를 직접 추천한 자치구인 광산구·서구는 각각의 이점을 들어 유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광산구는 KTX광주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무진(하남)대로 등 광주·전남 지역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후보지 4곳을 추천할 정도로 적극적인 서구는 행정·교통 인프라를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시청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재 지이자 도심 중심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내세우고 있다.

반경 5km(차로 20분 내) 이내에 종합버스터미널·KTX역·공항이 인접,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신속 차단·조치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백화점·컨벤션센터 등 기존 자원을 있는다면 지역 내 의료관광산업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논리 중 하나다.

최근엔 북구가 보건복지부 권역별 기준이 지역 개발 추이와 전담병원 이전 등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건부 유치 경쟁 참여의 뜻을 비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기준 광주 인구의 29.72%에 달하는 43만2872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서구와 함께 3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34.8%(2만9467명), 장애인의 31%(2만1738)가 북구에 살고 있어 공공 의료 수요가 많다는 논리다.

전남 공공의료원 3곳(목포·순천·강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 북부권(장성·담양)과의 접근성도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북구는 첨단 3지구 개발 본격화와 전담병원 이전 추진 등으로 기존의 의료권역 구분이 취지가 퇴색했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부지 선정을 주장한다. 공론화 방식이라면 북구도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차질없는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부지 선정 용역을 마친다.

시 관계자는 "중증 응급치료센터 접근성에서 광산·서구가 소외됐다"며 "단순한 유치 논리보다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보지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유치에 참여하려면 필수 의료에 대한 논리가 명백하고 현실적 여건이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 선정 용역 과정에서 의료계·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형택기자



광주비엔날레 작품 설명 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달여 앞둔 2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관 제1전시실에서 공동예술감독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촌 창업 멘토링해 준다

내일까지 창업 어가 20가구 모집 1년 간 후견인이 1대 1 경영 지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신규 어가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은 3년 이내 귀어 및 어업인 후계자와 올해 귀어 창업자(예정)

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창업 어가로 선정되면 수산 신지식인과 선도 어가, 수산분야 기술사 등 수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후견인들과 1대 1로 연결돼 양식기술, 경영지도 등 어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창업 어가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 1년 간 매월 6회 이상(현장 방문 3회 이상)

진행하며, 교육하는 후견인에게는 기술 지원에 소요된 활동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까지 도내 창업 어가 20가구를 모집키로 하고, 지역별로 완도 5가구, 여수 4개소, 목포·해남·고흥·영광·진도 각 2가구, 강진 1가구씩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3월19일까지 후견인과 멘토링 약정 체결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재지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사업이 신규 창업하는 어업인들의 어촌현장 적응과 어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수산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동구, '행복 키우는 도시농부' 텃밭 분양 호응

광주 동구는 도심 속 유휴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말농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비롯해 도시텃밭 분양 등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주말농장은 내남동 184번지 일대 도시농업 복합단지와 연계해 지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농작물 재배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도시생활 속 농업 체험기회와 농작물 생육과정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2021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추진

광주 서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1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컨설팅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 경영환경 시설개선 사업으로 확대, 올해는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경영개선에 초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1년 이상 된 영세 소상공인으로 향후 발전성 및 코로나-19 피해여부 등을 심사하여 4월중에 약 15개 업소를 선정한다.

남구, 대촌동 일원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만든다

광주 남구와 남부소방서가 협업을 통해 대촌동에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과 정성모 남부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구청장실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소방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와 남부소방서는 다음 달부터 대촌동 일대 농촌마을 1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북구,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법 체험 프로젝트' 운영

광주 북구는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보호관찰소, 북부경찰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산구 성과관리위원회, 2021년 기본계획 확정

광주 광산구 성과관리위원회가 24일 광산구청에서 '2021년 제1차 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구정 성과관리 최종 평가 결과와 올해 구정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성과관리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 지자체 업무를 자체 평가하고,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받는 법정업무.

이날 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은, 광산구가 보고한 2020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를 검토했다. 최종 평가 대상은 각 부서가 구정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 실현을 위해 내놓은 성과목표, 성과지표, 역점시책 등이었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위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 애용·납품에서 제1인인 슬로러입니다.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